

외향적 성장보다 내실 다지기가 '화두'

템플스테이 운영 10년, 평가와 과제는

템플스테이가 운영된 지 꼭 10년을 맞았다. 2004년 36개였던 템플스테이 사찰은 2012년 현재 109개 사찰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가자 수도 내외국인 포함 매년 10~2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은 참가자들의 만족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 이하 사업단)이 발간한 '2010~2011 템플스테이 성과평가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만족도 지수는 10점 만점의 8.33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참가 외국인 91.2%와 내국인 81.0%가 템플스테이를 타인에게도 추천해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지현 스님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다.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10년을 거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성장했다. 템플스테이뿐만 아니라 연계 문화상품이나 홍보 어플리케이션 등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10년간을 평가하자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고 자평했다.

빠른 성장세를 보인 템플스테이지만 가지고 있는 과제도 많다. 대표적으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개선 △인력 안정성 확보 △각 사찰 브랜드 강화 △사후 관리마케팅 체계 확립 등이다. 템플스테이 일선 관계자들은 가장 먼저 인력의 안정성을 꼽았다. 실제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는 스님들은 대부분 1년 안팎에서 자리를 옮기고, 실무자들의 이직율도 높은 편이다. 109개 운영사찰 중 지도법사가 없는 사찰도 17개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이자 조계종 주

성교쇄신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사업단 차원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단 역시 인력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동국대와 연계한 아카데미, 외국어 교육, 경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 큰 효과가 가져오진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동소이한 불교 수행, 문화프로

수행·불교문화 프로 우선 대표 관광 자원으로 성장 각 사찰 브랜드 강화 계획 '사후관리 마케팅' 개발도

그램을 변화,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숙제다. 1700년의 한국불교 역사 문화와 간화선이라는 수행법을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국인 참가자 동기가 휴식과 수행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 유지가 강화되어야 한다.

각 사찰이 가지는 특성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운영 사찰들의 특성을 파악해 묶는 그룹링(grouping)과 자신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브랜딩(branding)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사찰들을 씨줄 날줄로 엮어 전체적인 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룹링 작업은 이미



2005년 국제명화단체인 '한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친구 만들기(KO·PA·IS)'가 고양 흥국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최근 외국인 특성화 사찰 15개소를 선정했으며, 향후 가족, 치유, 수행 등의 특성과 사찰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지현 스님은 "템플스테이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109개 사찰의 특성들을 분석하고 있다"며 "추후 사찰들과 협의해 특성화 지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관리 마케팅 역시 앞으로 템플스테이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미 관음종 묘각사, 봉화 정량사, 모악산 금산사 등은 이 같은 사후 관리를 시행해 효과를 보고 있다. 묘각사는 지난해 11월 '외국인 대상 심층 템플스테이'를 개발했다. 총 7단계로 진행된 심층 템플스테이에 외국인들은 높은 호응을 보였고, 이제 내국인들에게도 개발된 상황이다. 정량사와 금산사의 경우 자체 커뮤니티를 활용해 참가자 정기모임을 열고 있다. 특히 금산사는 기

존 참가자를 템플스테이 자원봉사자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인력 수급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묘각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여 스님은 "참가자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며 "일선 스님들도 템플스테이를 단순 사업이 아닌 불공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단은 현재 산적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통해 프로그램, 시설, 인력을 체계적으로 움직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현 스님은 "10년 동안 잘 운영돼 왔지만, 외부에 휘둘린 면도 없지 않다"며 "앞으로의 10년은 외향보다는 내면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다. 내면 다지기와 자생력 강화가 향후 10년의 화두"라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매일 5분이라도 단정히 앉아라"

올 끝은 수행자의 표본 故 활산당 성수 대종사

"바른 수행자라면 깨어 있는 동안 눕지 않아야 한다. 결코 많이 먹지도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예불에 빠져서는 안된다. 휴지 한 장도 아껴 써야 한다. 절대 잡기에 손대지 말지이다."

활산당 성수 대종사는 해방 전 출가해 1967년 7월에 조계사 주지, 1968년 5월 범어사 주지, 1972년 9월 해인사 주지를 역임했고 1973년에는 서울 세곡동에 범수선원을 열었다. 이후 회암사·고운사·마곡사·표충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78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불교지도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했다. 1981년 1월 조계종 제18대 총무원장을 지냈다. 2004년 5월 해인사에서 대종사 법계를 수지했고, 2005년 11월 조계종 전계대회장을 역임했다. 이런 '사관(事判)' 경력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스님의 치열한 구도행이다.

스님은 이미 서너 살 때부터 어른들하고만 가까이 지냈기에 '햇 노인'이라 불렸다. 원효 대사와 같은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한 스님은 도사를 만나겠다고 범어사를 찾아 "여기서 제일 큰 종 나오라"고 계속 소리쳤다.

잠시 후 '큰 중' 이나와 "총각, 큰 중은 왜 찾는가?"라고 물었다. 스님은 말했다. "원효 대사와 같은 도사를 만나려고 전국을 다녔는데, 도사는 없고 절에는 놀고먹는 중들뿐입니다. 국민들이 절에 와서 같이 놀고 먹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들은 '큰 중'은 아무 말도 없이 한참을 서 있었다. 이 '큰 중'은 바로 동산 스님이었다.

범어사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성수 스님은 조계암에서 은사인 성암 스님을 만났다.

1948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선지식이 계산 곳이라면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제방을 다니며 진리를 구했다. 1981년에는 총무원장에 취임해 10·27 법난을 맞아 혼란스럽던 종단을 수습해 이와 사에 자재한 면모도 보여줬다.

성수 스님은 2005년 전계대회장에 올라서는 수계하는 수행자들에게 자신 속의 보물을 찾는 것이 수행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고구정명히 당부했다. 성수 스님은 대중법회뿐 아니라 어린이 회관까지 찾아가길 마다하지 않는



끝없는 진리 추구한 선승 생활속 참선 수행 강조 서울 등에 선원 건립해 사부대중 제접 '자비행'

열린 마음으로 유명했다. 또, 대중에게 하루 24시간 중 단 5분이라도 부처님처럼 단정한 자세를 가져볼 것을 권하는 등 생활 속의 참선 수행을 강조했다. 스님의 사부대중을 향한 마음은 서울 범수선원, 백암 오도선원, 함양 황대선원, 산청 해동선원을 개원해 진리를 구하는 사부대중을 제접하는 자비행으로 이어졌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활산당 성수 대종사 행장	
1923년	경남 울주 태생
1944년	천성산 내원사에서 성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48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48년 ~	제방선원 수선안거 봉암사 결사 참여
1967년	조계사 주지
1968년	범어사 주지
1969년 ~	통도사 극락암 경봉선사 깨 법을 전해 받음
1981년	제18대 총무원장
2004년	대종사 법계
2005년	전계대회장
2012년 4월 15일	오전 6시 통도사 관음암에서 원적

종교 편향·혜불 MB가 'TOP'

이명박 정부, 종교차별 사례 총 204건으로 높아

중평위 발간, 종교차별 사례집서



1945년 미군 정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종교차별 사례가 발생한 정권은 이명박 정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교분리 위배 발생은 114건이 기록됐으며, 종교자유 침해는 36건, 종교차별·혜불 사례는 54건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수치가 가장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중평위)가 발간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에서 나타났다.

사례집에 따르면 정교분리 위배는 이승만 정부가 다음으로 높았고, 박정희, 김대중·노무현, 김영삼, 전두환·노태우 정부 순이었다. 종교자유 침해, 종교차별·혜불 사례는 정권을 거듭할 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중평위는 "기독교의 정교일치 움직임이 정점에 달한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한국 개신교계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복음주의의 정교일치 성향을 고려할 때 합사리 찾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종일 기자

"대학생 범불교 조직으로 남겠다"

대불련, 조계종 신도단체 등록 공식 거부...포교원 강행 방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 이하 대불련)이 4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현)이 진행 중인 신도단체 등록을 공식 거부했다.

최경환 대불련 회장은 "포교원장을 당연직 총재로 하며 회장 임명권과 감사 선임권, 지도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포교원 신도단체 등록'은 종단을 초월한 대불련의 정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등록을 공식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불련은 '대중공의'를 제안했다. 최회장은 "대불련은 대학생 고유의 자치권 수호를 위해 앞으로 전국의 지부 및 지회와 함

께 대중의 공의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발에도 포교원은 신도 단체 재등록을 강행할 방침이다.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원 방침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4월 20일 제6차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에서 "포교원의 지원 대상은 대학생과 청년"이라며 "조계종 청년회와 대학생회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포교원은 대불련의 2012년도 템플스테이, 영캠프, 세내기 포교지원금 등 모든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법화종현(정종교) 큰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연화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청시자

저자전화
010-7415-0803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대전광역시 소재 연화사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사태해석)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최고수로 가는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신문, 인터넷, TV, 유·무선 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력하면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불교전법도량 연화사 불교대학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382번지 교무접수처 ☎ 042)477-0703 / 011-9911-1277

